

글 : 이경순 팀장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HACCP기준원 기획연재]

# HACCP 개념의 이해와 적용 - 7원칙

지난호에 HACCP 7원칙 중 1원칙 - 위해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7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1원칙 - 위해분석이다.

사실 농장에서 전혀 새로운 위해를 분석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농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미 연구, 실험 등등에 의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농장에 맞게끔 내용을 선택해서 위해분석의 자료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지난호에 이어 계속 HACCP 7원칙에 대해 설명하겠다.

두 번째 원칙은 중요관리점 결정이다. 중요관리점이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공정으로 하나의 공정에 여러 가지의 위해요소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요관리점은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로 중요관리점 역시 농장에서 관리가 가능한 단계여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한계기준 설정이다. 한계기준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관리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위해요소가 완전 제거되어야 한다든가, 일정 수준 이하 혹은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한계기준은 법이나 기타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자체에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농장에서의 예를 들면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사용시 휴약기간 준수를 한계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검역원 고시를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모니터링(감시)방법 설정이다. 모니터링은 농장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서 한계기준이 지켜지는지를 관찰 및 측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누가 언제(얼마나 자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출하단계에서 한계기준을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준수 확인 이라고 정했다면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할 때는 누가, 언제 어떤 기록확인을 통해서 휴약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어디에 기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개선조치 방법 설정이다. 개선조치란 농장에서 정한 한계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법 설정과 마찬가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입추시 SE 불검출에 대한 예로 들어보자. 입추계군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했더니 SE 양성으로 나온다면 이는 농장에서 정한 한계기준인 SE 불검출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입추된 계군을 전부 종계장으로 되돌려보낸다거나 혹은 전부 도태시킬수도 있다.

아니면 수의사와 상의하여 음수투여를 한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SE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그 계군을 유지하도록 할수도 있다. 이렇게 한계기준을 벗어났을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해두어야 한다.

여섯 번째 원칙은 검증방법 설정이다. 검증은 좁게는 중요관리점 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넓게는 선행요건프로그램 운영까지 HACCP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검증 역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누가 언제(얼마나 자주)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농장내부에서 자체 검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브랜드나 조합 같은 조직적인 관리가 되는 곳에서 농장의 HACCP 운영에 대한 검증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원칙은 기록 및 문서화이다. 선행요건프로그램에 따른 농장운영을 하고, HACCP 7원칙 12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기준서 작성 및 실행에 따른 확인 기록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이제까지 농장에서 HACCP을 적용함에 있어 선행요

건프로그램 및 HACCP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상기시켜보면 사실 HACCP을 적용한다고 해서 아주 새롭게 해야 할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해오던 농장관리에서 조금 더 청결하게 조금 더 방역이나 질병관리에 노력을 더 한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해오던 기록관리에서 HACCP과 연관된 약품, 출하일지 등의 기록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일을 하면서 이러한 기록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을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가면서 기록이 습관화되어간다면 HACCP 적용을 함으로써 농장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가지 중요한 것은 HACCP에 대한 농장주의 운영 의지이다. HACCP은 관리체계이며 결국 이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볼수 없다. HACCP은 시설의 개선이라기 보다는 작업자의 관행(습관)을 바꾸는 시스템이다.

중요한 것은 절차화된 기준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와 실천인 것이다. 지정을 지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 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